

# 5·18암매장 추정지 발굴 중 또 배관 발견

### 수도·통신 추정...암매장 현장 대규모 굴착 훼손 정황

### 5·18재단, 너릿재 등 조사 확대...교도소 지하공간도

옛 광주교도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 암매장 추정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또다시 배관(수도·통신용)이 발견됐다. 이미 한 차례 이상 굴착돼 현상이 훼손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발굴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18 기념재단은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를 또다른 암매장 추정지인 너릿재 현장에 투입하는 등 암매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옛 교도소 북쪽 담장 추가조사 부지에서

발굴을 진행하던 중 지표 아래 50~60cm 지점에서 배관 1개가 드러났다.

재단은 북쪽 부지 117m 구간을 40m(폭 3m)씩 3개로 나눠 발굴하며 있다. 첫번째 구간 지하 20~100cm 지점에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배관 8개가 발견돼 폭을 2.5m 더 넓혀 조사하고 있었다. 추가 조사지점에서 배관이 또 나오며 총 9개 배관이 발견됐다.

배관이 정확히 묻힌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용도는 수도·통신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암매장지로 꼽혔던 첫번째

구간에서 다량의 배관들이 드러나면서 과거 대규모 굴착이 이뤄졌던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재단은 이에 따라 교도소 북쪽과 더불어 남쪽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5일 땅속탐사레이더를 투입해 교도소 북쪽 담장과 남쪽, 화순 너릿재에 이어 이날 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옛 농장터 구간 지하 20~100cm 지점에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배관 8개가 발견돼 폭을 2.5m 더 넓혀 조사하고 있었다. 추가 조사지점에서 배관이 또 나오며 총 9개 배관이 발견됐다.

또 전 교도소 경비교도대원이 시신을 최종적으로 암매장한 장소라고 지목한 감시

탑 지하공간도 살펴보고 있다. 대피소로

추정되는 지하공간은 교도소 감시탑 4곳 중 2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5·18재단은 17일 5·18기념문화센터 시민사랑방에서 현황 브리핑을 열고 레이더 탐사 분석 결과와 그동안 접수된 제보 내용, 앞으로의 발굴 조사 계획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광주일보에 암매장을 증명한 3공수여단 11세대 출신 신순용 전 소령, 감시탑 내 암매장 제보 등에 대해 발표할 방침이다.

인터뷰에서 "교도소 주둔 당시 3명을 사살해 암매장했다"고 증언한 신 전 소령은 "다른 부대원들이 교도소와 광주~담양간 고속도로 사이에 20여구의 시신을 묻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9 해질 17:26 | 맑음 05:37 | 맑음 17:00

**추위 부르는 비**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C)**

|    |       |    |    |    |       |
|----|-------|----|----|----|-------|
| 광주 | 3/14  | 보성 | 가평 | 고령 | -2/12 |
| 목포 | 4/13  | 순천 | 가평 | 고령 | 2/13  |
| 여수 | 5/13  | 영광 | 가평 | 고령 | 0/14  |
| 나주 | -1/13 | 진도 | 가평 | 고령 | 1/14  |
| 완주 | 5/14  | 전주 | 가평 | 고령 | 0/13  |
| 구례 | -3/12 | 군산 | 가평 | 고령 | 0/13  |
| 해남 | 1/14  | 남원 | 가평 | 고령 | -2/12 |
| 장성 | -1/14 | 옥산 | 가평 | 고령 | 7/15  |
| 장흥 | -1/12 |    |    |    |       |

**◇ 바다 날씨**

| 지역 | 암파도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 앞바다    | 남동~남 | 0.5~1.5 | 남동~남 | 0.5~1.0 |
| 남부 | 앞바다    | 남동~남 | 1.0~2.0 | 북~북동 | 1.0~3.0 |
| 남부 | 앞바다    | 동~남동 | 0.5~1.0 | 동~남동 | 0.5~1.0 |
| 남부 | 앞바다(동) | 동~남동 | 1.0~1.5 | 동~남동 | 1.0~2.0 |
| 남부 | 앞바다(서) | 동~남동 | 1.0~1.5 | 동~남동 | 1.0~2.0 |

**◇ 생활지수**

|      |    |
|------|----|
| 산불위험 | 낮음 |
| 자외선  | 낮음 |
| 미세먼지 | 보통 |

**◇ 물때**

| 목포 | 간조    |       | 만조    |       |
|----|-------|-------|-------|-------|
|    | 06:28 | 18:57 | 01:10 | 13:42 |
| 여수 | 간조    |       | 만조    |       |
|    | 01:57 | 14:27 | 08:30 | 20:29 |

**◇ 주간 날씨**

| 18(토) | 19(일) | 20(월) | 21(화) | 22(수) | 23(목) | 24(금) |
|-------|-------|-------|-------|-------|-------|-------|
| ☀     | ☁     | ☀     | ☀     | ☀     | ☀     | ☀     |
| 3/5   | -1/7  | 2/10  | 2/13  | 3/14  | 2/13  | 1/12  |

## “민가 피했다” 말 남기고...화순 산불진화 헬기 추락 조종사 숨져

16일 오후 4시40분께 보성군 벌교읍 지동리 논에 산불진화용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박모(63)씨가 중상을 입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박씨는 숨지기 전 “헬기에 이상이 생겨 민가를 피해 논으로 추락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현장은 민가와 떨어진 빈 논이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재산피해는 없다.

헬기는 이날 오후 4시15분 화순군 동북면 이천리 아산에 발생한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 화순군의 요청으로 출동하던 중이었으며 이륙한지 5분여 만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체 소속 이 헬기는 보성·화순·고흥군이 산불 진화·감시를 목적으로 공동 임대 운영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경찰이 16일 보성군 벌교읍 지동리 논에 추락한 산불 진화용 헬기를 살펴보고 있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kwangju.co.kr

## “돌아오지 못한 5명 가슴에 묻고 떠납니다”

###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회견...“2기 특조위 출범 진상규명” 촉구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오는 18일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16일 오후 세월호 선체 수색이 진행 중인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선체 수색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지금 비통하고 힘들지만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일각에서는 가족들을 못마땅하게 보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가족

이 너무 보고 싶어 내려놓지 못했다”며 “빠 한 조각이라도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갈등 속에 더 이상 수색은 무리한 요구이자 저희를 지지해주는 국민을 더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팽목항과 목포신항 컨테이너에서 3년 반 넘게 머물며 기다려온 가족들은 “희망

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니다. 선체조사 과정

에서라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미수습자 가족이 원할 때까지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따르려 한다.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가 가족에게 결정을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2기 특조위가 구성돼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고도 주장했다.

남현철군, 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혁규군, 권재근씨 등 미수습자 5명의 가족은 18일 오전 목포신항에서 간소하게 영결식을 치른 뒤 각각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른다. 미수습자들의 유골을 태운 유골함은 평택 서호공원과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 안치된다.

가족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헌신적으로 도와준 진도 군민·어민, 목숨을 걸고 수색에 앞장서준 잠수사들, 현장 관계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아파해주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

## 광주천 모든 구간 수달 서식 흔적

### 환경연합, 배설물·발자국 확인

환경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광주천에서 수달 흔적을 찾았다.

광주천남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16일 “광주천 전 구간을 조사한 결과 28개 지점에서 배설물 89개와 3개 지점에서 발자국 3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불완전실천본과 사업의 하나로 지난 달 10일부터 31일까지 수달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수달 특성과 조사 교육을 이수한 시민 16명이 참여했다.

조사단은 광주시 동구 용연마을부터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광주천 전 구간을 4구간으로 나눠 직접 걸으며 배설물과

발자국 흔적을 찾았다.

조사 결과 광주천 상류구간인 교동교와 녹동교, 용산교, 태암교 주변에서 26개의 배설물이 확인됐다. 또 남광교와 학강교, 광암교, 중앙대교 등에서도 발자국과 배설물이 발견되며 도심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두표 호남대 교수는 “수달의 배설물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수달이 광주천에서 서식한다는 증거”라면서 “이미 확인된 광주천과 황룡강, 무등산 원호계곡에서 살고 있는 수달이 서로 다른 개체군인지 분석해 안정적인 서식처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환경미화원, 동료 쓰레기수거차에 치여 숨져

50대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는 동료의

쓰레기수거차에 치여 변을 당했다. 졸지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된 이들은 12여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정을 나눴던 선·후배로 알려졌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노대동 호수공원 주변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서모(59)씨가 동료 김모(47)씨가 몰던 쓰레기수거차 후미에 치였다. 사고로 서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쓰레기수거차 뒤범퍼 쪽에 올라탄 채 다음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김씨는 주차된 차를 피하고자 차를 후진시켰고, 서씨는 잠시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서씨는 구청과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서 35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했으며, 내년 정년을 앞두고 있었다고 동료는 전했다. /김현영기자 young@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전국학교 옥상 2500곳 설치확정·관공서 설치**

시공 사례: 광주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서울 노원구청 / 운암동·소룡호텔 / 주월동·성관어린이집, 주월동·노스페이스건물 / 봉선동·반석물출발건물 / 내방동·내방교회 / 중흥동·진미시당옥상 / 쌍촌동·원도식육옥상, 임미자전통김치, 0당구장건물, 힐스테이트옥상 / 화정동·노디건물 / 목포·한가족식당, 순천·화이트옥상 / 월곡동·은누리미트 / 서양새마을금고주요소 외 300곳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Hanwha Q CELLS** 세계판매 1위 / 25년 출력보장

**해가온에너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의료광고심의제 제 170713-중-83333호

**100세 시대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무릎의 통증의 시작은 무릎 내측의 관절 연골판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관절 연골 손상이 되어 안쪽이 닳아지면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다리 변형이 됩니다. 결국, 오다리 변형을 일차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심한 검사! 정밀한 진단! 가족같은!**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앞위치!